



4면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발족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음 10월 25일) 제2910호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의 성장동력’ 새만금, 정상 궤도 올라

새만금방조제 착공 30주년

▶ 관련기사 2면·16면

1991년 시작, 공사 중단 등 우여곡절 끝 2010년 준공 도-정치권 공조 내부 개발·투자유치 등 진행 속도

새만금방조제 착공 30주년을 맞았다.

새만금 개발은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6, 7기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등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핵심 기반시설, 내부개발, 투자유치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 국가와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11월 28일은 새만금방조제가 첫 삽을 뜬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1970년대 정부 국토확장 사업 구상 중 가장 입지조건이 적합한 지역으로 새만금이 거론됐고, 지난 1991년 정부가 개발 착수를 결정,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후 순조롭게 추진되던 새만금 사업이 지난 1995년 환경단체 등으로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0년 4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준공됐다.

지난 30년간 터덕거렸던 새만금 사업은 민선 6기 송하진 도지사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치권과 전북도 간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며,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민선 7기에는 공공주도 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됐고, 2018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SK·GS 글로벌 등 대기업 투자유치, 새만금 국제공항 여타면제 등 굵직 굵직한

일들이 이뤄지면서 새만금 기반시설, 내부개발, 투자유치 등 3박자를 고루 갖추며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특히, 2021년은 새만금 1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뜻깊은 해로,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MP)이 재정비되면서, 2050년을 목표로 단계별 실행계획이 마련되는 등 새만금 사업의 원형점프를 위한 발판을 다졌다.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국제공항, 신항만 및 철도의 트라이포트(Tripport) 구축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으며, 단순한 교역과 물류공간이 아닌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새만금 십자형 간선도로인 동서도로가 지난해 12월 완공됐으며, 새만금 남북도로도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인 오는 2023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지역 간 연결도로 역시 지

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쾌거를 얻어 낸 새만금 국제공항과 국가재정으로 전환돼 속도를 내고 있는 신항만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새만금 인입철도 등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도 계획대로 완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추진 중에 있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의 선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복합개발용지 서쪽에 약 200만평 규모로 들어선다.

1조3,5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조성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 2만5,000명이 거주하고, 생태주거지구·창의문화지구·국제업무지구 등 7개 거점 공간으로 구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은 전 세계적 기조인



위성을 통해 찍은 새만금의 모습.

(사진=전북도청 제공)

2050 탄소중립 선언과 RE100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선도사업인 총 3.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부터 1

단계 육상태양광 0.3GW 발전을 시작하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정부의 '새만금 그

린 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새만금이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의 종합적 성과를 선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으며,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그린수소 생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산업 중심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민간기업 투자유치도 활발하다.

작년 SK컨소시엄과 GS글로벌에 이어, 올해 전보BS, 유니테스트까지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챌린지 테마파크 개발사업 등 관광사업 분야의 민간투자도 활발히 추진 중으로, 전북도는 투자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새만금방조제 착공 30년을 맞아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은 전북도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새만금의 땅은 국민의 피와 땀을 모아 만들어진 것이다. 새만금에는 30년 전북도민의 한과 혼이 깃들여 있다"며 "새만금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생태문명의 중심지이자 명품도시로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박지성 전북현대 어드바이저가 지난 26일 전북도청 접견실을 찾아 송하진 도지사와의 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 지사 찾은 박지성 “프로축구로 전북 세계에 알릴 것”

전북도와 우호 협력 다짐

한국축구의 영원한 캡틴 박지성(전북현대모터스FC 클럽어드바이저)이 송하진 도지사와 만나 양 기관의 우호 협력을 다짐했다.

전북도는 박지성 전북현대모터스FC 클럽어드바이저가 전북을 방문해 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와 전북현대모터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K리그 통산 8번째 우승을 거머쥐며 4연패를 한 전북현대모터스는 FA컵 우승까지 차지하며, 더블(K리

그 FA컵)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박지성 클럽어드바이저의 방문은 우호 관계를 형성해 온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지성 어드바이저는 지난 2014년 현역 은퇴 이후, 국제축구연맹(IFFA) 마스터 코스를 통해 행정가 수업을 받았으며, 국제축구평의회 자문위원, 대한축구협회 유소년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본격적인 행정업무에 발을 디뎠다.

올해 1월부터 전북현대모터스FC 클럽어드바이저로 전북과 손을 잡은 박지성 어드바이저는 프로와 유소년 선수의 선발, 육성 및 스카우팅, 훈련시

스템 제시, 프로와 유소년팀의 선수이적 및 영입 등 일정부분의 테크니컬 디렉터의 역할도 하고 있다.

전북현대축구단에 유럽식 선진시스템을 적용한 박지성 어드바이저로 인해 전북축구가 진정한 리딩클럽이 돼 K리그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성 어드바이저는 "문화·예술의 도시인 전북과 손을 잡고, 프로축구를 통해 전북을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박지성 어드바이저 활동을 크게 환영하며, 전북 축구 활성화, 2023 전북 아메리칸스 대회 성공개최 등 전북 일터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제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소기업·소상공인을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드리니까

언제든지 노란우산

- 연 최대 500만원 소득 공제
- 공제금 압류 금지
- 연 복리 이자 지급
- 경영·심리 무료 상담

코로나 위기 노란우산과 함께 극복하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최대 24만원 가입 장려금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